



골프여왕들의 '금빛 다짐' 여자골프대표팀도 리우데자네이루에 모두 집결했다. 박민지, 양희영, 박세리 감독, 김세영, 전인지(왼쪽부터)가 17일(한국시간)부터 1라운드에 돌입한다. 16일 리우 바하 올림픽 골프코스 앞 오픈기를 배경으로 포즈를 취한 여자골프대표팀. 리우데자네이루 | 뉴스1

경보 박철성 “진종오 형, 金 기운 좀...”

비하인드 리우

금메달 하나면 '슈퍼스타'

팬싱 박상영은 떠날 때까지 사진 공세 금메달 싸움이 양궁대표팀 인기 폭발

“저기, 저 사람이 금메달을 가져왔네. 구경 가자!” “저 친구가 오늘 우승했다네. 함께 사진 찍을까?”

그러나 대회 초반과 지금은 분위기와 풍경 모두 사뭇 다르다. 올림픽이 갖 개 막했을 때만 해도 이만큼 높은 유명 선수들이 크게 인기를 모았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우사인 볼트(자메이카)와 사진 찍고 싶다.” “마이클 펠프스(미국)가 ‘수영황제’라던데, 실력만큼 정말 매너도 좋은 사람일까?” 일반인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은 물론 선수들이 선수들 찾아 사인을 요청하고 함께 사진을

찍으려는 진풍경이 자주 연출됐다.

지금도 또 다르다. 대회가 반환점을 돌아 서서히 종착역을 향하면서 ‘인기’의 척도’가 많이 바뀌었다. 역시 메달리스트들이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미디어의 집중적인 스포트라이트 못지않게 각국 선수들은 메달리스트들과 이런 저런 소중한 추억을 남기느라 여념이 없다. 특히 ‘금빛 기운’을 지닌 이들은 그야말로 인기 폭발이다. 서로 출전 종목이 달라 평소 잘 알고 지내지 못했지만, 올림픽이라는 공통분모를 지닌 데다 적지 않은 시간 동안 함께 파파 눈물을 흘려온 터라 이제는 스텝없이 다가설 수 있다.

얼마 전 한국육상 남자경보의 간판 박철성이(34·삼성전자)는 남자 50m 권총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사격황제’ 진종오(37·k)를 우연히 선수촌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서 박철성은 농담 삼아 “올림픽 금메달의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게끔 기뻐함을 하나 달라”고 요청했다. 어떤 것을 쥐어줄지 잠시 고민하던 진종오는 자신이 소지하던 작은 태극기를 건넸다. “내가 결승을 치른 사격장에서 응원한 관중이 선물한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소속팀 후배이자 육상 대표팀에서 한술밥을 먹고 있는 김현섭



남자경보의 간판 박철성이 남자 50m 권총에서 금메달을 딴 ‘사격황제’ 진종오에게서 건네 받은 태극기를 흔들며 환하게 웃고 있다. 리우데자네이루 | 남정현 기자

(31)과 19일(한국시간) 경보 50km에 출전하는 박철성은 진종오로부터 받은 태극기를 가방에 꽂고 다니며 어쩌면 자신의 마지막 올림픽 경기가 될지 모를 무대를 기분 좋게 준비하고 있다.

팬싱 남자 에페 개인전에서 우승한 박상영(21·한체대)도 하루아침에 최고의

인기를 얻은 사례다. 모든 일정을 마친 펜싱대표팀이 16일 귀국길에 오른 가운데, 박상영은 선수촌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사진공세에 시달려야 했다. 심지어 명성 높은 외국선수들도 펜싱 금메달리스트를 먼저 알아보고는 “축하한다”는 말을 건네며 아는 체를 해왔다.

양궁대표팀도 빼놓을 수 없다. 이전까지 역대 하계올림픽에서 무려 19개의 금메달을 휩쓸었던 태극궁사들은 리우 올림픽에서도 변치 않는 실력을 입증했다. 남녀 개인전과 단체전을 싸늘이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단일국가선수들이 올림픽 특정종목에 걸린 모든 금메달을 챙기는 사례는 흔치 않다. 특히 이번 대표팀에 미남미녀들이 많아 남다른 관심을 받았다든 후문이다.

한국 선수단 관계자는 “선수들도 스타들을 동경한다. 모두의 꿈인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을 향한 시선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며 “선수촌에 머문 선수들은 소식 전파도 빠르다. 누군가 메달을 땀다고 하면 삼시간에 소식이 번진다. 여기에 국경도, 종목 구분도 없다”고 분위기를 귀띔했다.

리우데자네이루 |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리우 입성한 손연재 “후회 없이 즐길래요”

19일 예선 상위 10위내 첫 관문 “남은 기간은 컨디션 유지에 집중”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22·연세대)가 리우데자네이루에 입성했다.

손연재는 16일(한국시간) 브라질 갈레아국제공항을 통해 리우에 도착했다.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서 메달권 진입을 노리는 손연재는 현지 적응을 위해 지난달 말 일찌감치 브라질 상파울루로 건너가 훈련을 해왔다.

18세 때인 2012런던올림픽에서 5위로 선전했던 손연재는 2014인천아시안게임에서 한국리듬체조 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지난해 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에선 개인종합을 포함해 3관왕에 오르는 등 그동안 꾸준히 기량을 발전시켜왔다.

리우 도착 직후 취재진에 둘러싸인 손연재는 “경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남은 시간 동안 컨디션을 잘 유지하고 집중해서 열심히 준비해야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올

림픽을 한 번 출전해봤다고 두 번째가 쉬운 것은 아니다. 모든 선수들이 이 무대를 위해 준비했고, 나도 열심히 했다. 후회 없이 하고 싶다”고 다짐했다.

리듬체조는 19일 26명의 선수가 출전한 가운데 예선을 치른다. 예선에서 상위 10위 안에 들어가 21일부터 이틀간 펼쳐지는 결선에 나설 수 있다. 손연재는 리우에서 한국리듬체조 사상 최초의 올림픽 메달에 도전한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손연재

사이클 낙차사고 박상훈 ‘단순 타박상’

포인트 레이스 중 7 선수와 충돌

한국남자사이클의 박상훈(23·서울시청)이 낙차사고를 당했지만 큰 부상은 없었다.

박상훈은 16일(한국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경기장에서 벌어진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남자 옴니엄 포인트 레이스 도중 넘어져 경기를 더 치

를 수 없었다. 옴니엄은 이틀에 걸쳐 스프린트, 개인추발, 제외경기, 독주, 플라이 랩, 포인트 등 6가지 세부종목을 소화하는 사이클 종합경기다. 사상 첫 올림픽 메달에 도전했던 박상훈은 마지막 종목인 포인트 레이스에서 낙차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52바퀴를 돌던 박상훈은 벨로드롬 벽면을 타고 내려오던 영국의 마크 캐벤디시의 움직임에 제

로 파악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캐벤디시의 사이클 뒷바퀴와 박상훈의 사이클 앞바퀴가 부딪혔다. 박상훈은 중심을 잃고 쓰러졌다. 그 뒤를 따르던 엘리야 비비아니(이탈리아) 등 2명의 선수도 함께 넘어졌다. 박상훈은 뒤따르던 선수들의 사이클에 부딪혀 일어나지 못했지만, 비비아니 등 다른 선수들은 곧바로 일어나 레이스를 재개했다.

고통을 호소한 박상훈은 결국 들것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경기는 잠시 중단됐다. 다행히도 타박상만 입

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기에서 은메달을 딴 캐벤디시는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낙차사고가 발생한 것은 내 잘못이 크다. 주변을 더 살펴야 했다. 사고를 겪은 선수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러나 금메달리스트 비비아니 등 다른 선수들은 “사이클 경기에서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캐벤디시의 잘못은 아니다”고 말했다. 최홍석 기자 gtyong@donga.com

편집 | 김대현 기자 bong82@donga.com

SNS 속에 비친 리우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출전을 앞둔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가 16일(한국시간) 리우에 입성한 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어린 시절 찍은 사진을 올리며 “지금까지 정말 참 잘 왔다”고 필승 의지를 다졌다. 손연재는 19일 예선을 시작으로 메달 도전에 나선다. 사진출처 | 손연재 인스타그램



미국수영협회는 15일(한국시간) 인스타그램에 마이클 펠프스(왼쪽)와 신에 케이트 러데키의 10년 전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한 사진을 올렸다. 당시 9세 소녀였던 러데키는 수중은 미소를 지으며 펠프스와 기념사진을 남겼다. 펠프스와 대표팀 동료가 된 러데키는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여자 자유형 200·400·800m와 계영 800m에서 4관왕을 달성하며 미국의 떠오르는 수영 스타로 자리매김했다. 사진출처 | 미국수영협회 인스타그램

연예 기자가 밝은 올림픽 스타 ‘육상 요정’ 엘라 벨스



연예 남자들 못지 않은 탄탄한 근육, 심지어 우람한 허벅지를 자랑하지만 또 그만큼 아름답다. 15일(한국시간) 육상 여자 200m 예선을 통과해 준결승에 진출한 오스트레일리아의 엘라 벨스(22)이 그 주인공이다. 검은색 긴 머리카락을 짙은 뿔고 총성을 기다릴 때 눈빛은 매섭지만 하다. 하지만 바람을 가르며 결승선을 통과한 뒤 동료와 포옹할 때 드러내는 미소는 더 없이 환하다. 실력은 물론 빼어난 미모로 전 세계 시청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의 SNS를 한 번쯤 찾아가봐라. 또 다른 매력을 확인할 수 있다. 백승미 기자 bsm@donga.com

니커크, 세계신기록의 힘은 ‘74세 코치’

(육상 400m)

리틀 빅 히어로

4년 전 시작된 보타 코치의 인연 업적한 훈련 아래 꾸준히 기록 향상

17년 묵은 세계기록을 갈아 치우며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남자육상의 깜짝 스타로 떠오른 웨이드 반 니커크(24·남아프리카공화국)에게는 특별한 파르티가 있다. 백발의 할머니인 안나 보타(74) 코치다.

니커크는 15일(한국시간)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육상 남자 400m 결승에서 43초03의 세계신기록을 작성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1999년 세비아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마이클 존슨(미국)이 세운 43초18의 종전 세계기록을 0.15초 앞당겼다.

니커크가 전력질주하는 동안 관중석에서 그와 왼 살 차이인 보타 코치가 큰 목소리로 응원하며 힘을 보탤었다. “배운 게 있어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그녀는 4년 만에 니커크를 올림픽 챔피언으로 만들었다. 니커크는 보타 코치를 만난 뒤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둘의 인연

은 니커크가 2012년 블룸폰테인의 더프리스테이트 대학에 입학하면서 시작됐다. 보타 코치는 1990년부터 이 대학 육상팀 감독으로 일해왔다. 당시 니커크는 고질적 부상을 안고 있었고, 부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타 코치는 주 종목 200m 대신 400m에 집중하도록 했다.

푸근한 인상과 보타 코치는 훈련에서만큼은 짜주는 법이 없다. “내 모든 선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엄격하다. 우리는 웃고 떠들 수 있지만, 훈련할 때만 크는 가장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녀의 지도 아래 니커크는 꾸준한 기록을 향상시켰다. 2013년 45초09였던 기록을 2015년 베이징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선 43초48까지 줄이며 사상 첫 메이저대회 동메달을 따냈다. 이어 리우에선 세계신기록으로 올림픽 챔피언에 등극했다.

니커크는 우승 직후 인터뷰에서 “보타 코치는 언제나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훈련시켰다. 이 세상에 불가능은 없다”며 “보타 코치는 평범한 여자다. 그녀는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금메달의 공을 돌렸다. 서다영 기자 seody3062@donga.com

리우 안테나

북한 리세광 기계체조 남자 도마 술

북한 리세광(31)이 기계체조 남자 도마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리세광은 16일(한국시간) 올림픽 아레나에서 벌어진 2016리우데자네이루 체조 도마 결선에서 1.2차시기가 평균 15.691점으로 1위에 올랐다. 2차시기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난도 6.4짜리 기술 ‘리세광(도마를 옆으로 짚은 뒤 몸을 굽혀 공중에서 두 바퀴 회전한 뒤 반 바퀴 비틀어 착지하는 기술)’을 성공시킨 리세광은 15.516점의 테니스 아블라진(러시아)과 15.449점의 시라이 겐조(일본)를 제쳤다. 리세광은 부상으로 이번 대회에 참가하지 못한 2012런던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양학선

독일카누대표팀 헨체 코치 끝내 승자

독일카누대표팀 헨체 코치 끝내 승자 교통사고로 수술을 받았던 독일카누대표팀 수레관 헨체 코치가 16일 승을 거뒀다. 헨체 코치는 12일 리우데자네이루 현지에서 택시를 타고 선수촌으로 이동하던 도중 차가 콘크리트 분리대를 들이받아 큰 부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된 뒤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헨체 코치는 2004아테네올림픽 카누 슬라럼 종목 은메달리스트이기도 하다. 독일선수단은 17일 헨체 코치를 추모하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고, 하루 동안 독일 국기를 조기 게양할 뜻을 내비쳤다.